

민주 “수정 특검법, 주가 조작·명태균 의혹 수사로 압축”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건희 특검법’ 내일 본회의서 표결 수사 대상 축소하고 제3자 추천...국힘 단일 대오 방침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압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중 명씨 관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국회의원 재·보궐 등 선거 개입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권·인사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게 할 것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은 근래 제기된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취지를 담아 수사 대상이 14개에 달했다.

하지만 여론의 이타표를 끌어내야 한다는 실리적 판단에 따라 김 여사 명목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직무실·관계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은 제외하고 수사 대상을 추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을 주도하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명 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혐의는 모두 뺐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검찰이 책임을 포기한다면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창원 산단 현장을 방문해 산단 선정 전후 토지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 제보자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도 특검 추천을 가능하게 한 특검법 수정안으로 여당 이타표를 노렸지만,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 양상을 보이자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뜻을 따르며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김여사 특검법’ 수정 방침과 관련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한 대표의 이 같은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원내대표는 “한없이 가벼운 여당 대표의 거짓 약속과 잔머리에 대한민국이 더럽혀지고 있다”며 “민심에 역행하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특검보다, 특감 후보 추천이 우선”

국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반대 입장 재확인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며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그어고 있다.

오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단일대오로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하며 대야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 특검법 수정안”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건 당의 일관된 논리에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이 특검은 현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

했고, 변화하려는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전 특검법 수정안을 낸 데에는 ‘여권 갈라치기’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김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갈등 양상을 빚었던 친윤(윤석열)·친한계 간의 틈을 파고드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친한계는 특히 한 대표가 주도해온 ‘특별감찰관’ 추진 카드를 고리로 특검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신 부총장은 “특별감찰관은 기본메뉴이고 특검은 선택메뉴인데, 기본메뉴도 안 하려는 사람(민주당)이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되나”라며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이 안 받으면) 특검 방어 전선이 더 탄탄해진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진욱·전진숙·서왕진 ‘국감 우수의원’

경실련, 5개 정당서 15명 선정...광주 국회의원 3명 이름 올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광주시당 위원장)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경실련은 12일 이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이다.

상임위원으로 보면 행안위에서는 박정현(민주당), 조승환(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에서는 김현정(민주당), 김남근(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산자위에서는 정진욱·서왕진 의원이, 기재위에서는 차규근(혁신당) 의원이 뽑혔다. 과방위에서는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한노위에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농해수위는 임미애(민주당) 의원, 국토위는 윤종오(진보당) 의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위에서는 김윤(민주당), 전진숙, 김남희(민주당), 이주영(개혁신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국감 총평을 통해 “정부의 이념적 인사 임명, 부자 감세, 공급 확대론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큰 만큼 이번 국감에서 실질적인 의료 공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했지만, 여야 힘겨루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국혁신당 “주말 집회서 탄핵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런

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